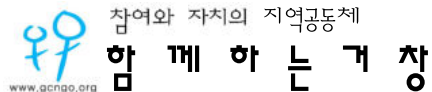


2016 정기회원총회



◆ 때: 2016년 1월 28일(목) 오후 7:30

◆ 곳: 함께하는거창 회의실



670-80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길 74

전 화 055-942-1117

팩 스 055-943-1170

전자우편 cham1117@hanmail.net

누 리 집 <http://gcngo.org>

☑ 1월 27일 총회에 참석하실 때 이 자료집을 가지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총 회 순 서

- I부 -

사 회 :

- 1.개회선언
- 2.공동대표 인사말
- 3.감사보고
- 4.2015년 결산보고
- 5.2015년 사업보고
- 6.2016년 사업계획(안) 보고, 의결
- 7.2016년 예산(안) 보고, 의결
- 8.기타 안건 토의
- 9.폐회선언

- II부 -

내빈인사 및 덕담나누기

함께 걷는 길 모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상임대표 이성호

2016년도 '함께하는거창' 회원총회가 어김없이 다가왔군요.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말을 씁니다.

'함께하는거창'으로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회원총회인데 왜 이리 제 마음이 무거운지요.

거창은 두 가지 현안으로 큰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학교앞 교도소 이전 운동이고, 하나는 무상급식 재개를 위한 홍지사 주민소환운동입니다. 이 두 현안은 거창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큰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함께하는거창'이라는 시민단체가 해야 하는 일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거창'의 슬로건은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입니다. 이 슬로건처럼 회원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발맞추어 '함께하는거창'이 함께해 왔느냐는 질문에 대해 딱히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회원총회를 맞아 회원님들을 뵙기에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함께하는거창' 회원 총회에 꼭 오셔서 지난 1년간 해 온 일에 대해 질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조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거창'을 위하는 마음 거두지 마시고 아량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맺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공동대표 이성호 올림

일상에서 일상으로...

공동대표 이점도

함께하는거창이 무상급식 재개운동, 학교앞 교도소반대운동을 해온 지도 햇수로 3년이 됩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두 운동이 정상화되고 잘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하는거창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지금도 하루도 쉼없이 사무국장을 비롯해 많은 회원님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운동의 주도력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50%가 넘는 군민들께서는 교도소공사 착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게 교도소반대운동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끈질긴 운동력으로 주민의 민심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은 회원님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거의 2년간 회원관리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때에도 묵묵히 응원해 주시고 도와 주신 덕분에 **함께하는거창**의 건전성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운동의 결정적 분수령은 4월 선거입니다. 이 기회를 충분히 살려 군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서 거창의 집단민원이 종결되고 일상의 삶이 평화롭게 누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창이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올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은총 가운데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감 사 보 고

감사 조영준

지난해 거창에서는 교도소 반대운동,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운동, 홍준표 도지사 소환 서명운동 등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2015년, 많은 운동들을 함께한 거창 회원님들의 참여와 연대로 잘 치루어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많지만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희망을 다짐하는 총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감사를 진행하였고, 회계와 운영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회계 부분입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를 모아서 운영하는 시민단체이기에 투명한 회계처리가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출결의서와 통장내역, 장학사업 특별회계까지 살펴본 결과 거창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게 회계처리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 ① 통장거래내역을 따로 출력하여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중복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통장거래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② 2015년초와 2015년말의 잔액을 살펴보았을 때 잔액이 약 400만원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무상급식 재개운동이나 학교앞 교도소반대운동 등 여러 활동에 집중하느라 자체적인 사업이 많이 부족했거나, 사업을 진

행해도 회원 여러분의 참여가 저조하여 지출된 경비가 예전보다 줄어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③ 지출결의서에 대한 결제가 없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매일매일 사무실에 와서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월 1회 열리는 정기운영위원회에 서라도 지출결의서를 확인하시고 결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운영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았는데, 꼼꼼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1년 동안 **함께하는게장**이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함께하는게장**이라는 단체가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2015년에 소식지가 한 번도 발간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여러 가지 소식들을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2016년엔 꼭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라도 소식지를 발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에는 총선과 군수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로 모두가 바라는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대표님과 임원진 그리고 김하주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응원해 주시는 **함께하는게장**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 정기 회원총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5년 1월 27일 오후 7:30

2. 회의장소 : 함께하는거창

3. 회의안건 : -.감사보고

-2014년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

-2015년 사업계획(안) 보고, 의결

-2015년 예산(안) 보고, 의결

-임원 개선

4. 출석의원 :172명 중 50명(출석 19명, 위임 31명)

5. 회의내용

- 이성호 공동대표, 2015년 정기회원총회 개회 선언.
- 김하주 사무국장, 출석 19명, 위임 31명 모두 50명이 참석했음을 보고.
- 정연탁 감사, 2014년 회계 및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 서류미비 1건 지적.
- 김하주 사무국장, 2014년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 원안대로 통과
- 김하주 사무국장, 201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보고. 원안대로 통과
- 유영재 임시의장이 주재한 임원개선에서 백철우 공동대표 사임, 이성호·이점도 공동대표 유임. 이상황 감사 유임, 정연탁 감사 사임하고 조영준 신임 감사 취임.
- 이후 기타 토의에서 이점도 대표가 2월 워크숍을 임시총회 형식으로 열어 공동대표 1인을 선임할 것을 제안, 의결.
- 이성호 공동대표, 폐회 선언.

2015년 1월 27일



2015년 결산보고

● 회계연도:2015년 1월 1일~12월 31일(단위:원)

1자 본 현 황

자 산		부채와 자본	
현 금	11,437,913	차입금(-통장)	0
적금(퇴직적립금)	2,400,000	퇴직적립금	2,400,000
임차보증금	21,500,000	자 본 금	32,937,913
합 계	35,337,913	합 계	35,337,913

22015년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수 입		지 출		잔 액	
일반회계 (사무국)	44,354,734	일반회계 (사무국)	40,218,384	일반회계 (사무국)	11,437,913
장학사업특별회계	17,401,658	장학사업특별회계	17,405,240	장학사업특별회 계	626,711
합 계	61,756,392	합 계	57,623,624	합 계	12,064,624

3장학사업 특별회계

수 입		지 출	
후 원 금	17,400,000	장 학 금	17,400,000
이자수익	1,490	부대비용	5,000
전년도 이월금	630,293	세금과 공과금	240
		현 금	626,711
수입합계	18,031,783	지출합계	17,405,240

4.일반회계(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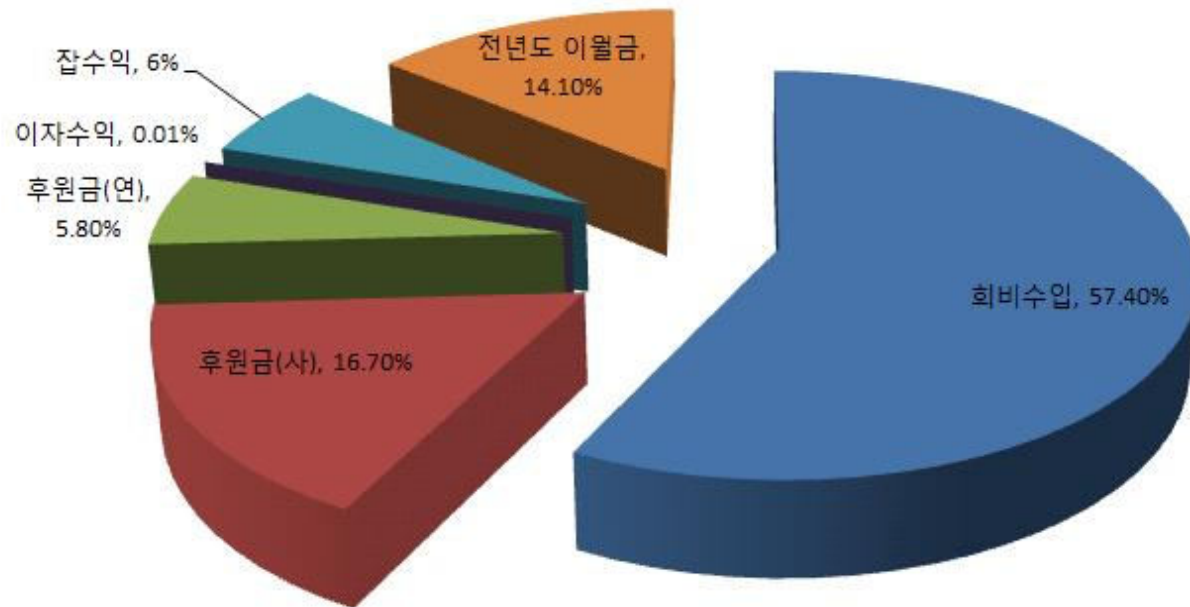
수 입			지 출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회비수입	29,625,000	인 건 비	급 여	18,200,000			
	후원금 (사무국)	8,635,000		상여금	400,000			
	후원금 (연구소)	2,990,000		퇴직적립금	1,200,000			
기타수입	사업 수입	0		복리후생비	1,553,780			
	이자수익	8,534	건물관리비	3,600,000				
	차입금	0	기기구입비	252,900				
	잡수입	3,096,200	사무용품비	101,850				
	전년도 이월금	7,301,563	세금과 공과금	780				
	51,656,297		사무유지비	소모품비	48,700			
				수선비	20,000			
				수도광열비	1,161,940			
				통신비	671,574			
				도서인쇄비	376,800			
				발 송 비	147,480			
			사 업 비	분 담 금	9,248,000			
				사 업 비	1,745,750			
				회원활동비	1,242,630			
				회 의 비	213,800			
				출장연수비	0			
				잡 비	32,400			
			사업외비용	예비비	0			
				현 금	11,437,913			
				수입합계		51,656,297	지출합계	

5. 계정과목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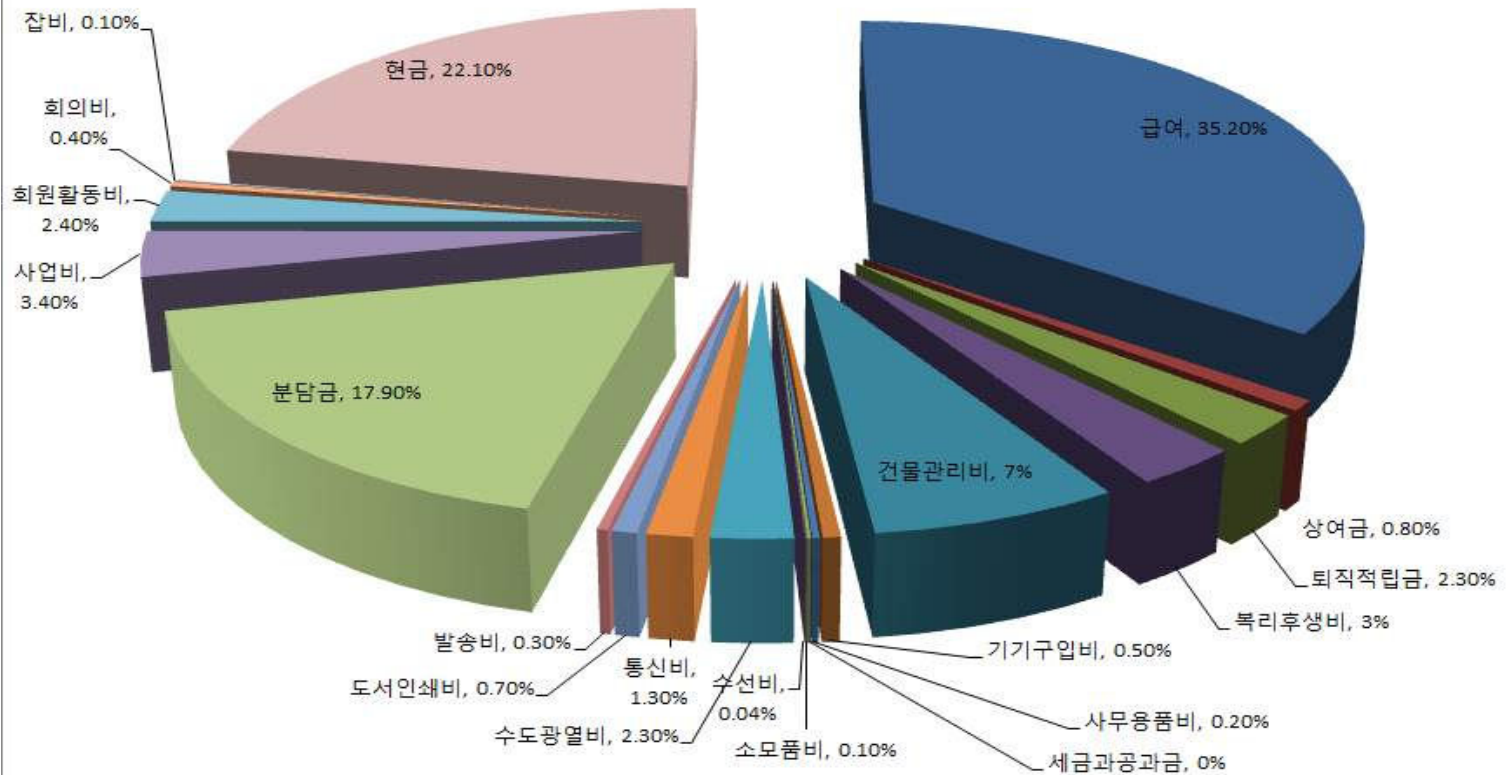
+

구분	계정과목	내 용
수 입	회비수입	회원 회비 수입
	후원금(사)	사무국 정기, 부정기 후원금
	후원금(연)	교육연구소 후원금
	사업수익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이자수익	예금통장 이자 수익
	차 입 금	-통장에서 빌려온 돈(부채)
	잡 수 익	수입항목이 없는 수입
	전년도 이월금	지난해 장부에서 넘어 온 현금
지 출	급 여	상근 실무자 급여, 활동비
	상 여 금	상근 실무자 상여금
	퇴직적립금	상근 실무자 퇴직 적립금
	복리후생비	4대 보험, 사무실 식대 등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건물관리비	사무실 월세
	기기구입비	각종 기자재 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구입비
	세금과 공과금	정부, 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
	소모품비	쓰레기봉투,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수 선 비	자산 유지, 보수 비용
	수도광열비	상하수도세, 전기세, 냉난방 비용(기름 등)
	통 신 비	전화, 인터넷, 문자메세지 발송 비용
	도서인쇄비	소식지 등 인쇄비, 복사비, 도서 구입비
	발 송 비	소식지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 택배비
	분 담 금	다른 단체와 연대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사 업 비	각종 사업비용
	회원활동비	회원 송년회 등 회원활동을 위한 비용
	회 의 비	회원총회, 각종 회의 개최 경비
	출장연수비	교육, 출장에 필요한 비용
	잡 비	기타 계정과목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
	차입금 상환	-통장 상환 금액
	예 비 비	예비비
	현 금	현 금

2015년 일반회계 수입 현황



2015년 일반회계 지출 현황



● 자산변동 현황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자 산				부채와 자본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
현 금	7,301,573 (24.3%)	11,437,913 (32.4%)	+4,136,340	차입금	0	0	0
적금(퇴직적립금)	1,200,000 (4.0%)	2,400,000 (6.8%)	+1,200,000	퇴직적립금	1,200,000 (4%)	2,400,000 (6.8%)	+1,200,000
임대차보증금	21,500,000 (71.7%)	21,500,000 (61.0%)	-	자 본 금	28,801,573 (96%)	32,937,913 (93.2%)	+4,136,340
합 계	30,001,573 (100%)	35,337,913 (100%)	+5,336,340	합 계	30,001,573 (100%)	35,337,913 (100%)	+5,336,340

·현금:매년 12월 31일 기준 보유한 현금.

·적금(퇴직적립금):월 10만원씩 총 120만원 늘어난 240만원입니다.

·임대차보증금:변동 없습니다.

·퇴직적립금:왼쪽 설명 참고하세요.

·자본금:함께하는기업의 순수한 자산입니다. 2015년에 비해 4,136,340원 늘었습니다.



2015년 사업보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

■ 청소년 장학사업

-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함께 선생님들이 멘토 역할을 담당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15년에는 29명(중학생 9명, 고등학생 19명)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 장학사업 회계는 사무국 회계와 완전히 분리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후원금과 예금이자 등 장학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은 전액 장학사업에만 사용합니다.

■ 학교앞 교도소 반대운동

- 2.6일. 19:00 콘서트하우스IN에서 학교앞 교도소반대 범대위 긴급 상임위원회 개최.
 - ▷이곤섭 상임대표, 공동대표의 견해 발표.(조직개편 내용 및 정당인의 범대위 내 활동 규정 등)
 - ▷상임대표단 보강-서미경, 김태경, 이춘옥, 이소영(각 학교 핑크맘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락하기로 함). 기존 상임대표 4인의 유임 및 재신임안은 이날 회의에서 다루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상임대표단 보강만 다룸.
 - ▷김은옥 집행위원장 사퇴에 따라 우성만 전교조 거창지회장이 신임 집행위원장 맡음.
 - ▷임영태 사무국장의 후임으로 이종현 아빠부대 국장이 취임.
 - ▷상임대표 보강, 집행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물갈이가 이뤄졌으나 집행부 각 국의 조직화는 진행중. 시민단체의 역할 부각.
- 2.28일 19:00 광안리에서 범대위 2기 집행위 첫 모임.
 - ▷참석자: 우성만, 이종현, 이점도, 김상택, 김연이, 임영자, 김남숙, 유영재, 김하주
 - ▷김상택:기획·집회팀, 이점도,유영재:정책팀, 윤철,임영자:홍보·선전팀, 김연이:재정팀, 임영태:자료수집팀, 송만호:법무팀, 강우석:사무국

등으로 역할 배분

- ▷집행위 일꾼들은 단톡 공지 및 시민사회단체 공문발송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기로 결의.
- ▷1기의 각 국(사무국, 정책국, 홍보국, 법무국) 체제가 아니라 사무국장 관할 아래 각 팀을 두는 것으로 결정.
- ▷다음 모임에서 천막 자진철거 건 논의하기로 함.
- 3.6일. 17:30 인문학서점 숲에서 범대위 2기 집행위 회의.
 - ▷이흥기 항소심재판 참가 문제, 서영교 의원 초청강연회, 주민설명회 및 먼단위 장날선전전 등 논의
- 3.13일. 17:30 인문학서점 숲에서 범대위 2기 집행위 회의.
 - ▷이흥기 항소심 재판(18일 11:20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건 논의 -최대한 많은 인원이 방청하도록 하며, 진정서는 18일까지 1차로 모아 제출할 것 결의.
 - ▷주민설명회 건 논의-마을회관 등을 2인1조 1~2팀 가동키로 함. 출향인들 대상 홍보 필요하다는 의견 나옴.
 -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건 논의. 현 시점에서는 꺼내기 애매한 사안이라는 평가.
 - ▷단톡방 활성화 건 논의. 단톡방 ‘1,000명 채우기 운동’ 및 ‘댓글달기’
 - ▷새 집행부의 가시적 활동 방안 논의. 먼단위 장날홍보전, 신성범 의원 거창사무소 앞 1인 시위 등.
- 3.18일 이흥기 항소심 재판 참관.
 - ▷오전 8:30분 로터리 출발. 재판은 부산고법 창원재판소 별관 315호(대법정)에서 열림.
 - ▷참가자: 우성만, 이성호, 표정숙, 이종현, 이점도, 이상화, 김남숙, 전성애, 김순남, 김하주.
 - ▷변호인단이 증인들을 신청했으나 정연순, 박현섭 2인만 수락되고 나머지는 기각됨.
- 3.25일 이흥기 항소심 재판 참관.
 - ▷오전 8:30 로터리 출발. 재판은 부산고법 창원재판소 별관 315호(대법정)에서 열림.
 - ▷재판 후 별관 앞에서 류영수 채널경남 대표의 이춘옥 범대위 상임대표 폭행사건 발생.

- 3.27일. 16:00 신성범 의원 사무소 맞은편 거창농협 앞에서 교도소 추진 및 이흥기 군수 재판외압 발언을 규탄하는 집회 열림. 집회 후 항의서한문을 사무소에 전달하려 했으나 사람이 없어 무산됨.
- 3.28일. 17:00 거창읍로터리에서 이춘옥 범대위 상임대표 폭행 건으로 류영수 채널경남 대표를 규탄하는 집회 열림.
- 4.3일. 범대위 집행위, 국회에서 기자회견.
 - ▷참가자: 우성만, 이종현, 이점도, 김연이, 김순남, 이만화.
 - ▷“법무부는 국회 부대의견인 주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공사발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 4.6일. 19:00 광안리에서 거창시사단 모임.
 - ▷참석자: 이성호, 이점도, 정상조, 김태경, 송성동, 유영재, 김홍섭, 최광재, 송만호, 김하주
 - ▷범대위 시사단대표(이점도) 교체 문제 논의
 - 이점도: “대표 교체하면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 김홍섭: “시사단이 욕 먹을 일 없다. 이제껏 잘해 오지 않았나? 대표 교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 ※이점도 대표가 시사단대표 계속 맡는 것으로 결정.
- 4.8일. 17:30 이흥기 군수 항소심 3차 공판.
 - ▷이흥기 변호사 측에서는 “여성단체 대표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이 단체 자체에 대한 항응제공으로 볼 수 없다(230조 1항에는 해당되지만 2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 요청. 식당모임 참석자들은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원이 아니라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입장.
 - ▷4.20일 오전 10시에 심리 종결기로 함.
- 4.26일. 19:00 거창문화원 상설미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강연회 개최.
 - ▷강연회 전 교도소부지 답사.
 - ▷중앙에 지역의 목소리 꾸준히 전달할 것을 당부(지속적인 주민서명운동 등)
- 4.26일 19:00 거창성당 지하 만남의 방에서 제26차 범대위 대표단 확대연석회의 개최.
 - ▷참석자: 이청준 공동대표, 표정숙·이춘옥·이점도·서미경·김은옥·김태경 공동대표, 류현덕 전 대변인, 최대석, 허세창, 강신현, 송성동, 이종

현, 송만호, 이숙형, 신승열, 이명행, 임영태, 정성순, 김남숙, 최광재.

▷이청준 공동대표 인사말

“외부의 적과의 싸움보다 더 힘든 게 자신과의 싸움이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오늘 이 모임이 우리끼리 서로 상처 보듬고 끌어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안건 상정 및 제안설명

이청준 공동대표-“법무부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데 이는 큰 호재가 될 듯하다. 서영교 의원은 ‘범대위가 힘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 집행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안건 ①조직재구성에 관하여

②범대위 세력 규합 위한 실천사항

③국회 및 법무부 대응팀 구성

④교도소 대체지에 관한 교반범대위의 입장정리

⑤성명서 준비 및 발표

1.류현덕 전 대변인, 조직개편안 제안설명

* 사무국, 대외협력국, 학부모국, 미래전략국, 주민홍보국, 실행동력국

* 집행위원장 체제를 폐기하고 조직국을 강화하는 조직 편제

김태경: “집행위원들의 역할 분담이 좋을 듯하다.”

허세창: “실무 위주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 집행위원장 폐지에 동의한다.”

이점도: “국들 간의 소통 확대가 필요하다.”

류현덕: “(제가 제안한 안은) 상임대표가 각 국 멘토 역할을 맡는 형식이다. 상임대표단 회의에 국장을 참석시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2.범대위 세력 규합 위한 실천사항

①현수막 재개 ②설명회 강화 및 반대서명 ③군청, 국회에서의 성명서 발표 준비 ④행동별동대 조직 ⑤집회 개최 준비 ⑥추가: 법조타운추진위의 25일 법무부 성명서 발표에 대한 대응 필요(김은옥)

이종현: “법무부의 공사발주 중단이 지속되도록 주민서명에 집중해

야 한다.”

유영재: “신성범 의원 견인이 필요하다. 거함산연대 출범하면 신성범 의원에 대한 압박이 될 듯하다.”

허세창: “서명부는 취합되는 대로 법무부 및 법사위 등에 전달해야 한다. 성명서 준비 및 발표 역시 급하다.”

강신현: “성명서에 범대위의 대응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대체지 분석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김상택: “주민서명만으로는 법무부 공사발주 중단상태를 오래 버틸 수 없다.”

4.교도소 대체지

유영재: “폐석산 부지를 네 군데 적시했는데 한 곳이 적지로 판단된다(3만평). 그러나 이를 범대위가 제안하는 건 민민갈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서 새정치 이름으로 제안한 것이다. 강길원 도시계획전문가의 최초 제안. 법무부 이명수 사무관은 ‘새정치가 아니라 범대위 이름으로 접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법사위 3인을 통해 법무부 기조실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상태에서 공사발주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면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신성범 의원의 견인이 필요하다. 신성범 의원의 태도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허세창: “대체지 검토는 구체적 적시는 아니더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청준: “대체지 문제는 단톡방 등에서는 언급하지 말고 내부적으로만 논의하자.”

최대석: “대체이전지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해야 하지 않나?”

→유영재, 최대석 2인이 범대위 내부에서 대체지 관련작업을 전담하기로 결정

5.성명서 발표 준비: 류현덕 전 대변인이 초안 작성하기로 함.

- 5.3일 19:00 콘서트하우스IN에서 제27차 범대위 상임대표단 회의 개최.

▷참석자: 이청준 공동대표, 표정숙.이춘옥.이점도.김은옥.김태경 공동대표, 김상택, 신승열, 유영재, 김하주

▷조직개편안 논의

①사무홍보국: 이점도 상임대표, 김하주·김상택 국장, 임영태, 하동근,

이순정

②대외협력국: 김은옥 상임대표, 우지호 국장, 박상희, 유영재

③주민설명서명국: 이춘옥·서미경 상임대표, 백미향, 김순남, 김남숙

④법률자문국: 표정숙 상임대표, 송만호 국장

⑤민원국: 김태경 상임대표 대신 Change Geochang 최윤희 씨 접촉
해 맡기는 방안 논의.

⑥학부모국: 미정

⑦대변인: 류현덕 ⑧회계: 김연이

※이번 조직개편은 부분적 손질이기에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상임
대표단에서 의결, 승인 가능하다는 자체 해석.

▷이홍기 군수의 판결 이후 대응방안 논의

군수직 유지시: 주민소환 추진, 천막사수는 상황을 봐서 대처하기로.

군수직 상실시: 천막 계속 유지.

▷범대위 동력 확보 위해 상임대책위원회 회의 재가동기로 함.

위원장은 이곤섭 전 위원장 재추대 형식으로.

▷이홍기 군수 재판 후 대규모집회 개최. 시기는 6월 초쯤으로

- 5.6일 이홍기 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3차 진정서(608부)와 범대위
상임대책위원회 연명서명부 제출.
- 5.8일 법무부에 대체지와 관련한 범대위 공문 전달. 국회에서 기자회견.
- 5.11일 14:00.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에서 열린 이홍기 선거법위반 항
소심에서 원심 200만원 판결. 범대위에서는 17명 참관.
- 5.12일 19:00. 콘서트하우스IN에서 범대위 상임대책위원회 4차 회의 개
최. 참석자 30명.

이곤섭 상임위원장 재선임 결의 및 상임대표 및 국장 소개, 경과보고,
안전 의결.

안전1: 대체지 관련 보고(유영재)

안전2: 부대의견에 대한 범대위 입장 정리.

-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라”는 요지 인식공유 필요.
- 앞으로 부대의견 관련 구체적 행동방향을 위한 소통 강화.

안전3: 천막 처리 문제-밤 12시까지만 지키는 운용의 묘 살리기로 함.
천막 운용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천막 유지하기로
의결.

안전4: 대규모 집회 개최 논의-급식연대 일정 고려해 6월 초순에 열기로 함.

안전5: 앞으로의 계획 논의.

- 5.27일 13:30.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강신화 거창교육장 면담. 표정숙, 이춘옥, 이곤섭, 이점도, 류현덕, 김하주 참석.

▷류현덕 대변인이 활동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 설명.

▷강신화: “법조타운 추진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여론수렴이 부족했고, 민주적 의사결집 과정이 미흡한 감이 있다. 행정차상으로는 적합했다 해도 이걸로 충분치 않다. 추진측(군, 법무부)와 범대위 간 대화가 단절된 듯하다. 대화의 장 마련하는 데 작은 힘 되겠다. 군수나 군 담당자를 만나면 ‘범대위 이야기 좀 들어 보라’고 말하겠다.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대화의 장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교육장은 교육의 책임자이지만 공무원이기에 행동에 제약이 있다. 이를 이해해 달라. 마음은 항상 학생 편이다.”

- 6.5일 19:00. 1교 위 강변 둔치에서 제3차 군민결기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메르스로 연기하고 오전 10시 거창읍로터리에서의 기자회견으로 대체.

- 6.12일 10:00 국회 김태호 의원실 방문. 김 의원 부재로 보좌관에게 방문목적 알려줌. “책임 있는 거창사람이 뒷전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 관심을 가져 달라.”

10:30. 국회 8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담당자들과 면담. 김은옥, 이점도, 이곤섭, 류현덕, 유영재, 권문상, 김하주, 김순남 참석. 법무부에서는 복지과장 및 사무관 5-6명이 참석했으나 진경준 기획조정실장이 불참해 서영교 의원이 오후 3시에 회의 재개할 것을 제안. 오후 3시 진경준 기획조정장 참석한 가운데 회의 재개.

범대위 측에서는 갈등해소위원회 구성 및 새로운 대체부지 제안.

▷김은옥: “거창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사실 대체부지를 모색, 제안하는 것도 우리의 일은 아니나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심정이다.”

▷류현덕: “장흥교도소 등과 같은 입지조건이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과정에서 기초설장이 복지과장에서 “왜 그렇게 땅값이 비싼 곳을 샀습니까?”라고 물음)

▷진경준: “땅값에 이미 200억원이 들어갔다. 서영교 의원 말처럼 현 부지에 지청과 지원만 옮기고 구치소는 다른 데 짓는다면 우리도 좋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준다.”

▷서영교: “기존부지엔 법원.검찰만 옮겨간 후 그곳에 아파트 등을 짓고 구치소는 소규모(1만평)으로 폐석산 등 다른 대체부지에 짓는 게 좋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진경준: “우리로서는 이미 사놓은 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이번에 범대위에서 제안한 대체부지는 검토해 보겠다.”



• 6.15일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1인시위. 하동근, 김하주. 16일 이점도, 이순정 1인시위 이어감.

• 6.16일 11:00. 거창군의회 의장실에서 군의원 면담. 범대위-표정숙, 김은독, 이춘옥, 류현덕, 김하주, 군의회-이성복, 형남현, 김향란, 이흥희 의원 참석.

▷표정숙: “군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하고 법무부는 군의 대표자들이 찬성하고 있고 땅을 사왔기 때문에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도시라는 거창의 이름에 그 자리 교도소는 말도 안 된다. 거창군민을 대체 뭘로 보는 것이냐.”

▷류현덕: “설득이나 싸우러 온 게 아니다. 자주 만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찾아왔다.”

▷김은옥: “전체 간담회를 요청한다. 발전된, 상생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형남현: “의원들에게 간담회 참석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성복: “오늘 이 자리가 전체 간담회라고 생각지 못하고 의장면담인 줄 알았다.”

▷이춘옥: “형남현 의원은 토크콘서트 때부터 이전을 주장했다.”

▷형남현: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류현덕: “법무부에 잘못된 보고가 올라가며, 법무부는 거창의 선출직들이 찬성한다는 논리로 추진하려 한다. 이런 싸움으로 1년을 끈 사례가 별로 없다. 공식적인 자리를 군의회에서 만들어 달라.”

▷김은옥: “제대로 된 입지선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초실장도 인정했다.”

▷류현덕: “국책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군의 주장과 거창 일은 거창에 맡겨 달라는 말은 모순 아닌가?”

▷형남현: “첫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나 지금은 아니다. 거창은 앞으로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자리는 결코 아니다. 현실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게 군의원이다. 국책사업이기에 국회의원이 나서야 하며, 국회의원이 마음을 바꿔야 한다.”

▷이성복: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겠다.”

※이날 오후 5시께 법무부 담당자들이 대체부지 현장실사차 거창 도착. 남상 둔동 둘러본 후 이튿날 나머지 부지 답사. 마을주민 수십 명이 각 대체부지 현장에 몰려들어 군의 동원 의혹 제기됨.

- 6.17일 14:00. 서울 국회 KB국민은행 앞에서 신성범 규탄시위 예정되었으나 메르스로 무산. 10:00 함양 신성범사무소, 14:00 산청 신성범사무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
- 6.25일 10:00. 군청 브리핑룸에서 천막 자진철거 관련 범대위 기자회견. 11:00부터 천막 철거 및 뒷정리. 범대위 사무실은 군청 정문 앞 3층 사랑방을 쓰기로 함.
- 7.2일 11:00. 군청 지하 소회의실에서 갈등해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2차 준비모임 개최

범대위 측 김은옥, 류현덕, 김하주, 군 측 유태정 계장 외 창조산업과 직원 2명 참석.

명칭을 두고 범대위는 ‘거창군 법조타운(거창구치소) 갈등해소위원회’를, 거창군은 ‘거창군 법조타운 갈등조정협의회’를 고집.

인적구성과 관련해 범대위는 범대위 2인, 군의원, 언론인, 주민 각 1명씩을, 거창군은 추진위 1~2인과 관계공무원 1~2인, 성산마을 및 대체부지 주민 등으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

(3차 회의는 7.15일 열기로 했으나 이상준 과장의 상호폭행사건으로 무산됨.)

- 7.4일 11:00. 사랑방 개소식.
- 7.7일 12:00.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참석자: 김은옥, 이점도, 류현덕, 이성호, 하동근, 강향숙, 김혜선, 김순남, 이순정, 김하주. 이날 추진위 측도 국회 앞 산업은행 앞에서 상경집회. 대체지 주민 40명, 최민식 사무국장 인솔 하에 상경. 오전 10시 30분경 집단으로 서영교의원실을 방문해 항의해 물의 일으킴. 신성범 보좌관이 이들을 서영교의원실로 안내해 줬다고 함.

- 7.10일 17:00. 콘서트하우스IN에서 제5차 상임대책위원회 개최. 사회: 이곤섭 위원장.

참석자: 이곤섭, 김은옥, 표정숙, 이점도, 류현덕, 표은희, 정연탁, 최은진, 강향숙, 송만호, 김진화, 추연숙, 김하주, 우태영, 김순남, 김상택, 박종원, 김혜선, 윤종필.

이곤섭 인사말: “이흥기 낙마가능성이 높아 선거국면을 목전에 둔 중요한 시점에서 열리는 회의이다. (범대위의) 내부적 분열과 혼란을 경계해야 하며, 건곤일척의 진검승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군수를 뽑아야 한다. 그 힘은 바로 상임대책위 대표로부터 나온다. 힘차게 나아가자.”

<회의안건>

1. 상임대책위 활성화 방안: 이점도-상임대책위 소속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나하나씩 챙겨가야 한다. 움직일 수 있는 단체부터 술선수범하고, 피케팅에 각 단체를 결합시키자. 예를 들어 금요일에는 사사제(사람사는세상 거창모임)가 참가하는데, 요일별 할당도 좋을 듯하다.
2. 핑크맘 1주년 행사: 김은옥 상임대표 발제. 7.31일 저녁 강변둔치. 사진전시회(실사출력), 내.외부 공연, 캠핑 등으로 프로그램 진행하며, 예산은 최대한 적게 쓰되 200만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예상한다.
3. CMS 활성화 방안: 표은희 발제. 6월 수입이 290만원인데 비해 6월 지출은 현수막 대금 결제, 상경투쟁 버스비, 차량방송용 스피커 구입 등으로 920만원이 달한다. CMS 후원이 필요하다.
4. 서명 및 피케팅 강화: 표정숙 발제. 피케팅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한

다. 법무부 앞 1인시위도 계속 해야 한다. 장날 서명도 중요하다. 류현덕-살을 더 붙여 나갔으면 좋겠다. 피케팅 후 참가자들이 모여 회식을 했으면 좋겠다. 김은옥-요일별로 상임대책위 소속 단체가 맡는 건 어떤가? 김순남-서명팀을 확충해야 한다.

5.미래전략국 가동: 류현덕 발제. 삼척원전반대 주민투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번 군수 보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신성범이 공천한 자를 떨어트린다’로 잡아야 한다.

• 7.20일부터는 릴레이 1인시위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

• 7.31일 19:00. 1교 강변둔치에서 학교앞교도소반대 학부모 쉼기 1주년 기념 및 제3차 군민대회 개최, 약 350여 명 참가.

·주제: 거창의 미래 백년 학부모가 지킨다

·1부 규탄대회: 사회 김상택

여는공연: 우문연 난타→전성은,이청준 공동대표의 인사말→임현숙, 손승미 씨의 학부모발언→<거창의 역사> 퍼포먼스→이곤섭 상임대책위원장의 성명서 낭독(성명서에서 거창군은 군민의 요구인 갈등해소위원회 대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할 것, 경찰과 검찰은 교도소 유치 거짓서명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것, 신성범 의원은이제라도 각성하여 학교앞 교도소는 안 된다고 하는 군민들의 절절한 요구에 귀 기울여 충의를 모으는 데 지도력을 발휘할 것, 거창민주주의를 왜곡날조하는 일부 언론은 각성할 것 등을 요구)

·2부 문화공연: 사회 추연숙

촛불행사(잔디밭에 만든 대형 OUT 글자 위에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서는 퍼포먼스)→거창통기타리스트 노래공연→정병문 씨의 색소폰 공연→정영주 씨의 교반주제가 ‘꿈은 푸르니까’ 외 공연→유기농 핑크포크가수 사이의 공연→씨니 플래시몹 댄스 공연으로 마무리

·먹거리장터 개설: 주류, 음료수, 음식(두부김치, 야채전, 마른안주)



• 8.17일 08:00. 이흥기 군수의 신속한 상고심 재판을 촉구하는 대법원 기자회견 및 법무부(정부과천청사) 앞 집회), 버스 3대에 100여 명 참가.

- 오전 11:00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이점도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 낭독 후 대표단이 서한문 접수.
- ※대법원 담당공무원과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대법원 앞 시위는 대부분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일어나는데, 거창처럼 선거법 관련 재판촉구 시위는 드문 경우라고 함.
- 13:40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 사회 김상택, 이곤섭 상임대책위원장 발언, 이춘옥 상임대표 성명서 낭독. 이후 대표단이 법무부를 방문해 성명서와 추가서명부(4,600여 명) 사본 제출.
- ※거창교도소 담당 법무부 공무원이 다수 교체된 것으로 알려짐. 이명수 사무관의 청송교도소로의 좌천, 복지과장도 타 부서로 발령나고, 진급 1순위였던 시설담당사무관도 진급 누락되었다고 함.
- 8.28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2차 공문 발송.(1차 공문은 8.10일 발송해 11일 정상수령되었다는 우체국의 확인이 있었음에도 법무부 측에서는 받지 않았다고 발뺌.)
- 9.2일 18:00. 거창읍로터리에서 대규모 피켓시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도 70명 정도 참석. 류현덕 대변인 경과보고, 이점도 상임대표 및 이곤섭 상임대책위원장이 자유발언함.
- 9.18일 13:00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점도, 이만화, 우태영, 이순정, 하동근, 김하주) 대법원 앞에서 이흥기 선거법위반 상고심 촉구 기자회견. 14:30 의왕시청 앞에서 피켓시위.
- 9.21일 21:00. 정부과천청사 앞 철야농성 위해 거창읍로터리에서 출발.
- 9.22일 00:30 청사 도착.
경찰버스 1대의 경찰력 동원해 청사정문 바로 폐쇄, 이에 항의하는 범대위 측과 마찰 빚음.
- 01:00 청사 맞은편 보도에 돛자리 깔고 식사, 릴레이 1인시위 개시.
- 07:00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



09:00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09:40 민원실에서 기초실장과 복지과장 면담 신청해 신임 김진
구 복지과장과 면담.

14:00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신성범 규탄 기자회견



• 10.2일 18:00~23:00, 대동리 주
공1차아파트 앞 강변둔치에서
교반 1주년 기념 불금주막 개최.
작년 아빠부대 주막에 비해 참
가인원 및 수익금이 2배의 규모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10.12일 19:00 거창읍로터리에서 학교앞 거창교도소 공사발주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이곤섭 대표는 17:00부터 단식 돌입.
전날(11일, 일) 설치한 농성장 각목 프레임을 12일 오후 군에서 철거하
고 화분 추가 설치.
- 10.14일 단식 3일차. 웅양 정영주 씨 피켓시위 때 위문공연. 최종두 진
주보호관찰소 반대위원장 찬조연설.
- 10.15일 단식 4일차. 18:00 대규모 피케팅, 20:00부터 10여 명의 범대위
회원 철야농성 돌입.
- 10.16일 14:00. 성산마을 회관에서 공사 입찰 참가업체 대상으로 현장설
명회 열림. 범대위 회원 10여 명, 마을 입구에서 현수막 시위 및 3명은
설명회장 옆에서 1인시위 펼침. 설명회는 30분만에 큰 충돌 없이 끝남.
- 10.17일 18:00. 1교 위 둔치에서 학교앞 거창교도소 공사발주 철회 및
대체부지 선정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제4차 범군민대회 개최. 이청준
공동대표의 인사말 대독. 이점도 상임대표의 규탄 자유발언, 문화공연.
2부 가두행진 펼쳐짐.(1교-경희한의원-농협군지부-거창읍로터리). 대회
개최 요일이 토요일이라 예상보다 참석자가 저조함. 경찰 추산 160여
명, 범대위 추산 200여 명.
- 10.21일 11:00. 군계획위원회 개최. 성산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건은 26
일 13:00으로 심의가 미뤄짐.
- 10.23일 성산마을에서 현대.주공3차.대경아파트와 대성고 등지로 연결되
는 도로개설의 실상을 알리고자 전단지 6천 매 긴급 제작해 아파트단
지와 학교 위주로 배포함.

- 10.26일 13:00. 군청 지하 중회의실에서 성산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군계획위원회 개최. 범대위 회원 30여명, 위원회 시작 20분 전쯤부터 회의실 앞에 모여 참관 여부 놓고 공무원들과 약간의 다툼 있었음. 9:30으로 심의 가결됨.
- 10.28일 18:30 거창읍로터리에서 기자회견.
21:00 정부과천청사로 출발(표정숙,이춘옥,김은옥,이점도,류현덕,이수구,김하주). 29일 00:40분경 도착해 피켓시위 펼침.
- 10.29일 08:00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
10:15 대법원 1호법정에서 이흥기 거창군수 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확정판결.
- 11.11일 국회청원 서명 및 저녁 피케팅 때 가래떡데이 떡 나누기
- 11.12일 양동인 전 군수, 출마의사 밝힌 기자회견.



- 11.21일 오전에 교량 난간 등 시내 곳곳에 “2016년 예산 전액 삭감” 현수막 게시했으나 세 시간 후 강제철거. 오후 5시경 이점도.임영태.김하주 창조산업과 향의방문 후 군청 현관 앞 및 로터리 등 4곳에 재게시한 후 향의시위.
- 11.23일 현수막 철거에 대해 군청 향의방문. 부군수 면담하려 했으나 출장으로 무산.



- 11.30일 08:00 범대위 회원 20여 명 국회청원 위해 상경.
13:45 국회 정론관에서 청원과 관련한 기자회견. 국회 청원 접수(서명 2,562명, 온-1,073, 오프-1,489)

14:30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김은옥 대표와 류현덕 대변인은 서영교 의원 면담

16:30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이춘옥, 김은옥, 이점도, 류현덕은 법무부 관계자와 면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서한문 전달.

- 12.01일 저녁 7시 거창YMCA 3층에서 제6차 상임대책위원회 개최. 40여 명 참석.

1)당면과제:12월 10일 쉼스작업 현장대응 및 회원보호

2)송년행사(12월 14일<월>, 거창성당)

3)선거국면에 임하는 범대위의 입장정리

4)범대위 조직 재정비

5)상임대책위원회 역할분담

6)기타안건 등으로 회의 진행.

- 12.10일 10:00 성산마을 현장에서 공사를 위한 쉼스 설치를 한다는 사전정보로 범대위 회원 등 70여 명 대성일고 앞에 집결.

10:40 방송차량 앞세우고 깃발과 현수막 들며 마을회관 앞으로 이동. 11시 마을회관 앞 도착. 류현덕 대변인 모두발언, 이곤섭 상임대책위원장 발언. 일부 마을주민들이 범대위 측에 항의. 창조산업과 이상준 과장과 유태정 계장도 현장에 입회. “보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시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범대위의 입장을 담은 서류를 현장 책임자에게 전달.

18:30 지난 6.25일 갈등해소위원회 구성 합의에 따라 자진철거했던 천막을 재설치. 설치 전 공무원 30여 명 현장에 모여 범대위 회원들이 화분 치우는 것을 제지하기도 함.

- 12.28일 17:00~22:00. 거창성당 지하에서 범대위 교반기금 마련을 위한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식전공연: 정병문 씨의 색소폰연주와 기타동동의 노래공연

·본행사: 전성은 공동대표의 인사말, 인디언수니의 노래공연, 세자매의 댄스공연,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

■ 학교급식 정상화 운동



- 1.22일(목) 홍준표 도지사의 거창방문에 맞춰 오전 10시 군청 앞 현관에서 기자회견. 이후 군청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 도지사가 차량에 탑승해 떠날 즈음 몇몇 학부모들이 도지사 차량을 저지하는 소동 벌어짐. 이 일로 20명에 가까운 기자회견 및 시위 참가자가 경찰조사를 받음.
- 1.30(금) 오전 11시 창원 전교조경남지회에서 열린 친환경무상급식지킴이 경남운동본부 임시총회에 이성호, 서미경, 김하주 다녀옴. 이성호 상임대표가 22일 사건 등 거창의 상황에 대해 경과보고. 주민투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짐.
- 2.9일(월) 저녁 7시 콘서트하우스IN에서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거창급식연대(준) 회의 개최.
 - ▷참가자 : 이성호, 정상조, 우태영, 송민선, 김남숙, 서미경, 김향란, 이순정, 하동근, 김태경, 이선미, 최외순, 이은정, 이숙형, 이춘일, 김하주
 - ▷이성호 함께하는거창 상임대표와 김태경 거창여성농민회장이 준비위 공동대표 맡기로 함. 서미경 거창여성회장이 집행위원장 맡기로 함. 서미경, 이소영, 이은정, 김남숙, 이숙형 5인이 각 학교 학부모단체 연락책임을, 김하주 함께하는거창 사무차장이 시민단체 연락책임을 맡기로 함.
- 2.25. 오전 10:30분 거창교육지원청 3층 강당에서 학교무상급식 지키기 위한 거창지역 학부모.주민 설명.토론회 개최.
 - ▷이성호 상임대표의 거창급식연대 준비위 활동 경과보고
 - ▷김향란 의원이 상황분석 군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보고
 - ▷진현극 친환경무상급식지킴이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본부의 그간

의 투쟁상황 보고.

▷양경숙 거창교육지원청 급식담당계장이 교육청 입장 및 경과보고.

▷이후 자유토론에서 ‘무상급식 정상추진’이라는 경남도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대응 홍보방안, 이를 위한 각 학교 순회 설명회 개최 등이 논의됨.

▷‘학교(무상)급식 지키기를 위한 거창지역 학부모.주민들의 공동결의안’ 낭독

- 4.2. 10:00분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2층 소회의실에서 학교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한 학교대표자회의 개최

▷거창급식연대(준) 주최. 100여 명의 학교대표자 등 참석.

▷거창급식연대(준) 활동 및 경과보고-무상급식 관련 주요 현황과 정세 보고, 각 지역 학부모 여론 및 자발적 대응과 결의상황 보고, 거창지역 학교대표자 상임대표 및 집행위원 선출, 거창군민대회 개최와 참가 결의, 성명서 채택 순으로 진행.

▷다양한 활동 방안 논의

서민자녀교육지원 신청 거부운동, 카톡.밴드 등 SNS 개설을 통한 소통, 1인시위, 도시락싸기운동, 급식비납부거부운동, 각 학교마다 현수막 걸기

▷4월 13일 오후 6:30분 거창읍로터리에서 거창군민대회를 열기로 함.

- 4.8. 거창군 전역 30여 곳에서 동시다발 피켓시위. 참가인원 약 400여 명(경찰 추산)



- 4.9. 10:00분 거창교육지원청 3층에서 거창급식연대 창립총회 및 기자회견 개최.

▷정관발표 및 수정, 검토

▷임원승인: 임현숙(거창초학

부모회장), 이성호(함께하는거창 상임대표), 정상조(거창군농민회 회장), 김남숙(거창여성회 부회장) 4인의 상임대표, 대표단은 각 학교별 학부모회장단이나 기타 임원 중 1인을 선임하기로 결의. 감사-이만화, 이윤경 / 집행위원장-김태경 / 사무국장-최외순 / 집행위원-이춘일(웅양초), 배경숙(위천초), 김연이(여농), 이은정(셋별초)

▷4.13 군민대회 중간점검

▷자유토론: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 급식지원센터의 유명무실화된다”, “급식체계에서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떨어져 나갈 우려 있다.”, “급식 단가상승(특히 먼지역)으로 학부모 부담이 높아진다.”, “단가를 맞추기 위해 급식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농산물이 사용되는 비중도 급속히 저하될 것이다.” 등 다양한 예상 의견들이 논의됨.

▷창립총회 후 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 4.13. 18:30분 강변
둔치에서 무상급
식지키기 거창군
민대회 개최

▷거창우문연의
난타공연

▷상임대표 4인
(이성호, 임현숙,
정상조, 김남숙)

의 인사 및 대회사 낭독, 구호제창.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인사 및 발언.

“급식은 교육이다. 헌법에 중등까지의 의무교육이 명시되어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 급식은 의무사항으로 무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보편/선별 논쟁은 하고 싶지 않다. 부잣집으로부터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급식은 차별 없이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다. 거창에 와서 많은 분들과 대화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며, 교육청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 시간 이후 교육청 가족 모두가 학부모와 같은 생각으로, 한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

▷군의원 발언(김향란, 형남현, 이흥희)

김향란: “거창군의회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부결 및 폐기에 힘을 보태겠다. 무상급식을 정상화하고 의무 급식으로 나아가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겠다.”

형남현: “어린 학생들에게 가장 죄송하다. 무상급식 중단사태는 도지

사 한 명의 갑질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고집을 꺾어라. 도교육감도 자존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이홍희: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다.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제대로 이뤄드린 게 없다. 당장이라도 경남도는 무상급식 중단을 철회하라!”

▷이춘일 집행위원의 경과보고

▷북상초, 위천중 학생들의 플루트 연주

▷할머니들 발언

“주민불편을 없애야 할 도지사가 아이들 밥그릇을 뺏다니 너무 치사하다. 우리 할머니들도 힘을 보태겠다. 아이들 밥그릇을 되찾자!”

▷거창여고 전다연 학생이 청소년대표로 자유발언.

“그동안 교육도시 거창이 자랑스러웠다. 무상급식도 교육의 연장이다. 학교에서부터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자라날 것인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이번 무상급식 중단으로 학원을 끊는 친구도 있다. 기숙사에서는 하루 세 끼를 먹는데 급식비만 30만원에 이른다. 많은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공부한다. 하루빨리 무상급식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

▷아림초 ‘기타동동’ 밥노래 중심 문화공연

▷학교 대표단 결의문 낭독. ▷시가행진

- 현재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8:30 거창읍로터리에서 피켓시위 진행 중.
- 5.26~27 거창군의회 총무위 모니터링 및 군의회 본회의 참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상정 보류,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 중 도비 13억200만원은 통과, 군비 13억200만원은 삭감.
- 6.9. 9:40. 거창급식연대, 거창읍로터리에서 선별적 무상급식 반대 무상급식 원상복구 학부모 서명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전체 6,200여 가구(7,716학생 대비 가구수 80%로 추정했을 때)의 80%가 넘는 4,979가정에서 선별적 무상급식 반대, 무상급식 원상복구에 대한 서명에 동참.(전체 학생 수 대비 가구수를 75%로 추정하면 서명동참 비율은 86%)
▷선별적 무상급식 반대, 무상급식 원상복구, 무상급식지원예산을 전용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폐기 지속적으로 요구키로.
- 6.18. 21:30. 거창YMCA 3층 강당에서 무상급식 지키기 거창급식연대

대표자회의 개최.

주요 활동 보고 및 재정보고, 성과 보고 및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이후 활동 계획 보고, 토론으로 이어짐.

- 6.23일 10:30.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4층 강당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임시총회 개최 안내
1부 : 임시총회, 2부 :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 7.3일 13:30.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상급식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개정안’ 부결. 개정안 찬성: 이흥희, 반대: 강철우, 김종두, 최광렬, 표주숙. 군의원 10명이 발의해 꼭 개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것을 파기함.
- 7.7일 거창급식연대, 무상급식 의무조항 개정안 부결의 책임을 묻는 거창군의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 7.16일 11:00. 경남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주민소환운동본부(준) 주관으로 무상급식 중단, 공공의료원 폐업,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하고자 주민소환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기자회견 직후 경남도선관위에 제출.
- 7.17일 14:30, 거창군농민회 사무실에서 거창급식연대 상임위집행위원회 연석회의
참석자: 이성호, 윤철, 이윤경, 최외순, 이춘일, 김연이, 김태경, 김남숙, 이은정, 임현숙
- 8.6일 10:00.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2층에서 홍준표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거창) 주관으로 주민소환선포식 및 수임인 교육 개최
·1부 주민소환 선포식: 사회 김태경
식전행사(노래 배우기-‘우리는 가지요’ 개사곡)→대표자 인사→영상자료 상영(우리가 걸어온 길), 학부모 발언(북상면 여농사무국장)→문화공연(거창여성회의의 울동)→홍준표지사 주민소환 선포식 낭독
·2부 수임인 교육
수임인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춘일 주민소환운동본부 대표
‘주민소환운동의 의미’ 발표-이윤경 거창여성회 사무국장
- 8.25. 천막설치 봉쇄 당해 우중에서 서명작업 진행. 26일 오전 7:30분 서명대와 천막을 설치했지만 10여 분 후 군에서 천막 강제철거. 거창주민소환운동본부 26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불법적 행정대집행으로 주민

소환 서명 방해하는 거창군은 합법적 서명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 파라솔 밑에서 서명작업 중.

- 8.19일 11:00~14:00, 거창성당 지하에서 거창급식연대 후원의 날 행사 개최. 함께하는거창은 이성호, 이점도 대표가 각각 티켓 10장씩 개인 판매. 단체 몫으로 배당된 50장 중 39장 판매.(최광재 20, 이기식 5, 송만호 5, 김하주 5, 윤철 4)
- 9.3일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돼 4일 본회의 상정. 4일 오후 3:40분 현재 김향란 의원과 형남현, 이흥희 의원이 통과 저지 중. 4:20 분경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통과. 반대3, 찬성7, 기권1. 김향란·이흥희·형남현 의원이 끝까지 반대발언했지만 수에 밀려서 가결처리됨.
- 거창읍로터리 서명대는 철거, 각 지역행사장 등을 찾아 활발한 서명작업.
- 9.23. 20:00 콘서트하우스IN에서 읍지역에서 활동하는 수임자들 모여 읍지역 서명 중간평가와 10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
- “무상급식비 영남 31% 비영남은 95%. 급식+교육은 정치홍행대상이 아니라 경남의 미래입니다.”
“아이들 급식으로 수익남겨 1인 천만원 넘는 수당지급한 원협은 급식지원센터 운영 중단하라!” 현수막 작업(총 34장) 및 지역신문(아림, 한들)에 광고 게재키로 함.
- 11.4. 11:00 거창군청 현관에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청구인서명 목표달성을 알리는 기자회견 개최. 추후에도 계속 서명 이어가기로 결의.
- 같은 날 오전 10시 열린, 홍준표 도지사 거창방문 시 손승미씨 공무집행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구형 300만원) 확정. 항소 여부는 추후 검토 후 결정키로 함.
- 11.20.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마지막날. 18:00 로터리에서 두 시간 가량 서명작업 진행 후 20:00부터 간단한 뒷풀이.
- 11.30. 1:30 도청 정문 앞에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제출 기자회견.
- 12.09 장민철 거창부군수가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 부군수실에서 과장단과의 티타임 자리에서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수가 거창이 많아 부담스럽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서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발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부군수실 방문.

■ 세월호 촛불문화제



- 2.16: 거창문화원에서 시민사회단체 연대 주관으로 ‘다이빙벨’ 상영
- 4.16: 세월호 1주기 촛불문화제 진행
- 5.16: 촛불문화제, 촛불기금마련 바자회.
- 7.14: 세월호 촛불연대
 - 곡성 촛불 2주년 연대 참석
 - 임실, 전주, 무안, 거창 연대 참석하여 국정원 때부터 이어온 곡성촛불 참석
- 7.16: 세월호 촛불문화제 준비- 플래쉬몹 피켓제작, 촛불 준비
- 8.28: 세월호 500일 촛불
- 12.16: 콘서트하우스IN에서 영화 ‘나쁜나라’ 상영
 - 매월 16일 세월호의 날 행사 진행중.

■ 국경교과서 반대집회

- .10.31~11.1. 19:00. 거창읍로터리
- 첫째 날은 피켓시위로, 둘째 날은 집회 형식으로 진행.
- 당초 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기획, 진행하려 했으나 거창YMCA의 권유로 집회신고와 장비세팅은 함께하는거창, 집회사회는 거창역사교사모임에서 맡기로 함.



■ 영화 '암살' 회원번기

- 8월 4일 20:00, 메가박스 거창점
- 성인 31명, 청소년 2명
- 사업비: 19만6천원



■ 회원산행대회

- 10.31. 14:00 거열빌라 옆 주차장에 모여 출발.
- 참가자: 이성호, 이점도, 이기식, 박고희, 김종철, 정성순, 이상환, 심순애 외 2명, 김하주.
- 문자발송 및 전화로 참가를 독려했으나 회원 개인사정으로 참석률이 낮았으며, 당일 산행을 약속했으나 불참한 회원도 몇 있었음.



■ 2015 함께하는거창 회원 송년의 밤

- 12.4. 19:00 광안리.
- 19:30분경 참석인원 파악 결과 45명 가량, 이후 늦게 온 회원 포함하면 60여 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
- 정연탁 원장의 시낭송, 김창석 씨의 노래공연, 김하주 사무국장의 기타연주로 프로그램 진행.



회원 소모임 활동

푸른솔

우리 지역의 가까운 산과 전국의 명산을 찾아 자연과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회원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가 안내(회장: 이기식, 산행대장: 백철우)

■ 제174회 덕유산(송계사)

- 1.날 짜 : 2015년 1월 3일
- 2.참 가 자 : 김영수, 신승열, 이종현, 송만호, 강경성, 백철우 6명
- 3.산행코스 : 송계사→횡경재→백암봉→향적봉→스키장
- 4.산행시간 : 6시간

■ 제175회 장군봉

- 1.날 짜 : 1월 18일
- 2.참 가 자 : 김영수, 이기식, 최정애, 백철우 4명
- 3.산행코스 : 고견사주차장→의상봉→장군봉→고견사주차장
- 4.산행시간 : 4시간30분

■ 제176회 약전산

- 1.날 짜 : 3월 15일
- 2.참 가 자 : 김영수, 신용균, 이경배, 이기식, 서대림, 백철우 6명
- 3.산행코스 : 용문정→약전산→합천댐
- 4.산행시간 :

■ 푸른솔 반기

- 1.날 짜 : 5월 30일

2.참 가 자 : 김영수, 신용균, 윤철, 이기식, 조재필, 이창희, 권문상, 신승열, 백철우 9명

■ 제177회 무등산

- 1.날 짜 : 6월 6일
- 2.참 가 자 : 김영수, 신용균, 신승열, 이창희, 서대림, 백철우 6명
- 3.산행코스 : 증심사→중머리재→장불재→입석대→서석대→증심사
- 4.산행시간 : 6시간 30분

■ 제178회 덕유산(형경제)

- 1.날 짜 : 7월 5일
- 2.참 가 자 : 김영수, 이종헌, 백철우 3명
- 3.산행코스 : 송계사→형경제→송계사
- 4.산행시간 :

■ 제179회 거망산

- 1.날 짜 : 9월 20일
- 2.참 가 자 : 신용균, 이종헌, 이기식 3명
- 3.산행코스 : 용추사→거망산→용추사
- 4.산행시간 : 4시간

■ 푸른숲 반기

- 1.날 짜 : 9월 25일
- 2.참 가 자 : 김영수, 신용균, 이종헌, 권문상, 윤철, 백철우 그 외 작은권리찾기모임 회원

■ 제180회 간월산

- 1.날 짜 : 10월 11일
- 2.참 가 자 : 김영수, 이종헌, 이기식, 서대림, 백철우 5명
- 3.산행코스 : 간월산장→간월공룡릉→간월산→간월산장
- 4.산행시간 : 6시간

■ 제181회 백양산

- 1.날 짜 : 11월 22일
- 2.참 가 자 : 김영수, 이기식, 백철우 3명
- 3.산행코스 : 백양사→백학봉→상왕봉→백양사
- 4.산행시간 : 3시간

■ 제182회 덕유산 샷갯골재

- 1.날 짜 : 11월 29일
- 2.참 가 자 : 김영수, 신용균, 백철우 3명
- 3.산행코스 : 황점→샷갯재골산장→황점
- 4.산행시간 :

■ 제183회 비슬산

- 1.날 짜 : 12월 27일
- 2.참 가 자 : 이기식, 정성순, 백철우 3명
- 3.산행코스 : 비슬산휴양림→대견사→대견봉→휴양림
- 4.산행시간 : 3시간



작은권리찾기모임

일상생활 곳곳에서 부딪치는 작은 권익 문제를 찾아내고,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낡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현실을 개선하여 우리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건강한 사회참여의 기쁨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슴 뿌듯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 김기오, 총무: 최광재)

■ 2.4일 MBC 시사매거진 2580팀의 취재 일정에 맞춰 광안리에서 긴급 모임 개최.

-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이점도, 이수구, 변범식, 신순남, 배인주, 박덕제, 장상철, 여승구, 정성순, 박고희, 김도연, 정문영, 강우석, 김하주
- ▷G&G캐슬 근처 가로등 미설치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취가 우려 문제, 88고속도로 진출입구 근처 보행로 미비로 인한 주민안전 문제 다룸.
- ▷이날 취재된 내용은 8일(일) 밤 11:15분 시사매거진2580 마지막 꼭지에서 방영.

■ 3.3일 2월 말에 열리지 못한 월례회를 이날 함께하는거창 회의실에서 석화굴점 번개모임으로 가짐.

-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이점도, 김남숙, 임영태, 류현덕, 정성순, 박덕제, 정병문, 이수구, 김도연, 김기윤, 배인주, 정은주, 심순애, 신순남, 김하주, 이순정.
- ▷김기오 대표, “신입회원들을 활동하고 싶은 각 팀에 배분해 활동성을 강화하자”고 인사말을 통해 밝힘.
- ▷굴점으로 회식 후 간단한 음악공연과 4인 1팀으로 세 팀의 웃놀이 펼쳐짐.

■ 3.31일 3월 월례회 개최. 대성복어.

-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이점도, 변범식, 심순애, 조인제, 박고희, 김도연, 장상철, 여승구(신연숙), 임영태, 김기윤, 김하주.
- ▷작년초 가동보와 지방선거, 올해까지 이어진 교도소반대운동 및 무상

급식 정상화 등 굵직한 사안에 문혀 작은권리 고유사업을 못했다는 평가.

▷올해부터 조직 정비해 본격적인 활동 해나가기로 함.

■ 4.28일 4월 월례회 개최. 광안리.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이점도, 윤철, 박덕제, 김종철, 박고희, 이수구, 심순애, 정은주, 조영준, 김하주

▷김기오 회장이 자연산 두릅 준비

▷창남교회 앞 삼거리 교통시설 보완문제 논의: 현재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및 거창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과에 신호등 설치 및 횡단보도 도색 요청하는 공문 발송한 상태.

■ 5.26일 5월 월례회 개최. 건계정식당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이점도, 박덕제, 김종철, 박고희, 이수구, 심순애, 정은주, 조영준, 김하주

■ 6.30일 6월 월례회 개최. 광안리에서 식사 후 아메리카노로 옮겨 회의 진행.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배인주, 류현덕, 심순애, 정은주, 윤철, 여승구, 이점도, 이수구, 김하주

▷서흥여객 문제 논의

군 관리부서와 서흥여객에 동시 공문발송해 군에는 관리감독 철저, 서흥여객에는 협조 요청키로 함. 심순애: 도시가스공사로 정상운행이 어려워진 것 같다. 안내판 등으로 공고가 필요하다.

▷거창대학 인근 신설도로 관련 안전은 김기오 대표가 현장실사해 문제점 파악하기로 함.

■ 7.28일 7월 월례회 개최. 광안리.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이점도, 류현덕, 박고희, 박덕제, 정성순, 심순애, 전수미, 이운길, 변유신, 김하주

▷김기오 대표가 거창대학 정문 앞 장팔리 쪽 도로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

■ 8.25일 8월 월례회 개최. 광안리

-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이점도, 변범식, 심순애, 여승구, 정은주, 신용균, 신용민, 이수구, 김도연, 임영태, 김하주
- ▷신용균 전 상임대표, 특별손님으로 참석. “작은권리찾기모임은 함께하는 거창의 대표적인 소모임으로 활동의 축이다. 감사드린다.”
- ▷김기오 대표, “정장마을로 이어지는 거창대학 앞 도로는 현재 보행로 공사 중이다. 교통섬이 필요해 보인다.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 보자.”, “중동주유소 사거리 신호등이 동시직좌와 비보호가 동시적용돼 운전자가 헷갈린다. 대안이 필요하다.”,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찾아라 작은권리!’를 집중 발굴하자.”

■ 10.6일 9월 월례회 개최. 광안리.

-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이점도, 박고희, 심순애, 정은주, 이수구, 윤철, 김하주
- ▷특별한 사업계획 논의는 없었음.

■ 10.27일 10월 월례회 개최. 광안리.

-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이점도, 이수구, 김도연, 여승구, 심순애, 김남숙, 김하주
- ▷한마음도서관 앞 대형버스 주차로 인한 안전문제 논의.

총평:

- ▶사업 제안(아이디어)은 있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실행력이 부족함. 2년 전 각 팀별로 체계화했던 조직구성을 재편할 필요성.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6년 사업 계획

함께하는게창이 2016년 해야 할 일의 흐름을 정리해 봅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은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게창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보태 주십시오.

■ 사무국

- 사무국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사업과 살림을 꾸려가겠습니다.
- 기본업무에 충실하며, 함께하는게창이 해야 할 일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기며,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홍보

- 회원들과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겠습니다. 연 4회 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상,하반기 2회는 발행하겠습니다. 내용을 풍부하게 실어 읽고 싶은 소식지, 회원이 기다리는 소식지로 만들겠습니다.
- 함께하는게창의 활동 내용을 주민들에게도 잘 전달하도록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 회원 활동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큰 행사보다는 작더라도 쉽게 참여하고 즐기는 내실 있는 행사를 마련하겠습니다.
- 등산모임 푸른숲과 작은권리찾기모임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 회원들의 요구, 취향에 따라 새로운 소모임 혹은 함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겠습니다.

■ 교육연구소, 장학사업

- 장학사업은 거창하진 않지만 적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와 입시교육 위주의 고민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문제를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경제적 지원 외에도 아이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민하겠습니다.

■ 건강한 지역 사회를 위해

- 예산감시 활동, 황강 하류권역 하천사업 및 고향의 강 사업 모니터링 실시 등을 꾸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 학교앞 교도소와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함께하는 노력이 적극 나설 것입니다.
-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군의회 의정활동 감시, 정보공개운동 등을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 연대와 협력

- 일상적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겠습니다.
- 시민단체 대표&실무자모임을 정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행사 위주의 일회성 연대를 넘어 일상적 사업 고민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년간 열리지 못했던 시민단체 연합체육대회를 올해 여러 단체와 협의해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

1.일반회계(사무국)

(단위:원)

수 입			지 출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회비수입	29,000,000	인 건 비	급 여	19,200,000
	후원금(사)	4,000,000		상 여 금	600,000
	후원금(금)	2,900,000		퇴직적립금	1,200,000
기타수입	사업 수입	0		복리후생비	1,553,780
	이자수익	5,000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3,600,000
	차 입 금	0		기기구입비	500,000
	잡 수 입	2,568,000		사무용품비	300,000
	전년도 이월금	11,437,297		세금과공과금	5,000
				소모품비	100,000
				수 선 비	100,000
				수도광열비	1,200,000
				통 신 비	700,000
			사 업 비	도서인쇄비	1,000,000
				발 송 비	600,000
				분 담 금	5,000,000
				사 업 비	7,000,000
				회원활동비	2,000,000
				회 의 비	500,000
				출장연수비	300,000
				잡 비	300,000
			사업외비용	차입금 상환	0
				예 비 비	4,151,517
수입합계		49,910,297	지출합계		49,910,297

2장학사업특별회계

수 입		지 출	
후 원 금	17,400,000	장 학 금	17,400,000
이자수익	1,500	부대비용	5,000
전년도 이월금	626,711	세금과 공과금	200
-		예 비 비	623,011
수입합계	18,028,211	지출합계	18,028,211

- 주1) 예산(안)은 2016년 1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많은 변수가 있어 실제 함께하는거창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2) 2016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5년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주3) 일반회계 중 후원금(원)은 교육연구소 설립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교조 거창지회가 설립·운영하는 인문학서점 “숲”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24만원 들어오는 후원금을 매달 말일께 ‘분담금’ 항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주4) 장학사업특별회계 중 수입액과 지출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부
과

땀을 게 없어서 아이들 밥상을 떼앗는가?

경남도와 거창군은 학교급식을 정상화하라!

- 학교 무상급식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무상급식은 도지사의 정치적 흥정물이 아닙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교육도시 거창의 자랑거리인 전국 최초 무상급식 실시라는 쾌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바로 홍준표 도지사의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야욕과 이에 맹종한 군수의 비겁함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교육도시 거창의 앞날은 참담하기만 하다. 학교 바로 근처에 교도소를 짓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이들의 밥상까지 뺏겠다고 한다.

거창의 무상급식은 교육도시의 위상을 세우고자 2007년 시민단체가 제안하고 거창군의회가 조례로 발의하여 제정, 실시된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이었다. 이후 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은 전국으로 퍼져 나갔고, 거창은 그야말로 교육과 복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어떤 지역보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건립했고, 거창은 민관이 힘을 합친 결과 군단위로서는 최초로 무상급식 시범지역에 선정되었다. 이제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무용지물이 될 판이고, 자랑스런 거창의 전통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밥을 거저 먹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급식은 바로 교육이다. 교육이 무상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이듯이, 급식 또한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밥상을 빼앗길 수는 없다.

홍준표 도지사는 2012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고, 2014년 선거에 앞서서도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로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거창군수는 무상급식을 통한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했었다.

그러나 도지사는 당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는 개인의 정치 야욕으로 공약을 뒤집고 아이들의 밥상을 빼앗으려 하고 있으며, 군수 또한 도지사의 장단에 놀아나 거창군의 지속사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거창의 미래이자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고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을 높이하고자 우리 거창의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는 경남의 모든 학부모 등과 힘을 하나로 뭉쳐 학교급식이 바로 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울 것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철회하고 학교급식을 정상화 시켜라.
1. 이홍기 군수는 거창의 자랑인 전면 무상급식을 지속성 있게 지켜 나가라.

2015. 1. 22.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거창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 일동**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지키기 학부모.주민 설명.토론회 열려



함께하는거창 보 도 자 료

(<http://gcngo.org>)

보도협조일 2015. 2. 25(금)	연락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8 전화 055-942-1117 팩스 055-943-1170 (담당:김하주 010-2036-7254)
총 매 수 1쪽	

경남도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에 따른 파행의 실상을 알리고 올바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키기 학부모.주민 설명회가 2월 25일 오전 10:30분 거창교육지원청 3층 강당에서 열렸다.

학교급식지키기를 위한 거창급식연대 준비위원회(상임대표 이성호) 주최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과보고, 김향란 거창군의원과 진현극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 양경숙 거창교육지원청 급식담당계장의 급식 관련 보고, 자유토론 및 공동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성호 거창급식연대(준) 상임대표는 준비위 활동 경과보고에서 “거창지역은 ‘무상급식의 성지’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조례가 제정되고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 지역이다. 당초 거창급식연대는 지난 2006년 출범해 시민 주도의 무상급식조례제정운동을 펼쳐 왔는데, 최근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라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의 실상을 바로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보고자로 나선 김향란 거창군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급식 중단은 정치논리에 의해 나온 것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무상급식을 지킬 수 있다”면서 “거창군의회 또한 학부모들과의 만남을 통해 무상급식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중 경남도당 주최로 문제인 당대표와 5인의 최고위원을 초빙, 무상급식을 제1 의제로 삼아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헌극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그동안의 본부 활동을 보고하면서 “작년 12월 이후 도회외 본예산 통과 이후 대규모 집회를 열어 추경 편성을 통해 무상급식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했으나 급식 중단의 책임을 경남도교육청에 전가하는 데만 급급한 홍준표 도지사의 모습에서 어렵고 긴 싸움이 될 것임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싸움은 무상급식 정상화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단체장도 무상급식 만큼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진 공동대표는 “앞으로 주민투표 대표자증명서 불교부처분 취소소송, 직무유기 고발 및 집단손해배상소송 등의 법률적 대응은 물론 정치적 대응을 통해 학교급식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양경숙 거창교육지원청 급식담당계장은 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영상자료 및 ‘학교 무상급식 관련 이해자료’를 통해 경남도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반박했다. 먼저, 도교육청의 불용액 1,340억원 등 자체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경남도의 논리에 대해 “불용액은 쓰고 남은 돈이 결코 아니라 다음에도 계속 쓰여져야 할 돈이다. 1,340억원이라는 수치도 부풀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급식담당자로서 거창군 관계자를 만나 학교급식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군 관계자로부터 ‘무상급식조례 전국최초 제정이란 거창군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도 무상급식을 계속하고 싶지만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학교급식에 쓰면 도청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경남도의 통고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경남도에서 아예 시·군 등 지자체의 무상급식에 관여하지 않으면 시·군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최고의 질적 수준을 자랑해온 경남도의 급식이 단가 부담으로 인해 급격한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정상 추진할 수 있다는 경남도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대응 홍보방안, 이를 위한 각 학교 순회 설명회 개최 등이 논의되었으며, 마지막 순서인 ‘학교(무상)급식 지키기를 위한 거창지역 학부모·주민들의 공동결의안’ 낭독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논평]

거창군의회, 이름 되면 딱가자는 것인가? 평일 돈내기 족구대회에 단란주점 뺏돌이, 무상급식 현안 제쳐두고 관광성연수까지

오늘 우리는 군민 여론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실낱 같이 기대를 걸어 왔던 거창군의회에 행태에 실망과 더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거창군의회는 지난 10일 업무시간에 군의회 공무원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돈내기 족구대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날은 제208회 본회의 폐회일이며,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치러지기 바로 하루 전날이기도 하다.

거창군의회는 이날 ‘여성친화도시조례안’을 놓고 의원들 간에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고 한다. 조례안의 부실과 졸속에 대해 야당위원이 지적하자 다수의 여권성향 의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의회는 폐회가 선언되자마자 운동장으로 뛰쳐나가 돈내기 족구를 즐겼으며, 내깃돈으로 단란주점에서 음주가무로 뒤흔 때까지 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11명과 직원 11명은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 자체가 나쁘달 순 없지만 현재 거창군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를 지켜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달갑지 않다.

지금 거창군은 경남도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중단선언에 따라 전국 최초 무상급식 조례제정으로 쌓아온 ‘무상급식의 성지’로서의 위상이 산산이 무너질 지경에 처했다. 무상급식 조례가 어떤 조례인가? 바로 거창군의회가 의원 발의로써 제정해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데 모범이 되어 온 조례가 아니던가? 거창군의회에 빛나는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인데도 이를 방치하고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다는 것은 군의회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다시 한번 묻는다. 군민과 함께하지 못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지 못하는 군의회는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다시 한번 촉구한다. 거창군의회는 제발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민민의 전당’에 걸맞게 거창군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군의회로 거듭나 달라.

2015년 4월 11일



참여와 자치의 지역공동체
함 께 하 는 거 창

진 정 서

□ 진정인 :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단체명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함께하는거창, 거창YMCA,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여성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거창지부, 전교조거창지회, 푸른산내들, 이상 8개 단체		
주 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길 74		
연락처	055) 942-1117(함께하는거창)	담당자	김하주(010-2036-7254)

□ 피진정인 : 한국승강기대학 관계자

□ 진정요지

최근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승강기대학교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법집행과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사실규명을 위해 조속한 수사 진행을 요청합니다.

□ 진정내용

○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최근 거창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한국승강기대학교에 관한 여러 의혹은 올바른 지역대학의 성장을 바라던 많은 주민의 뜻을 저버린 안타까운 비보입니다. 특히 한국승강기대학교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승강기대학으로 전환하며 100억 가까운 군비를 들이고도 지역대학으로 성장하기는커녕 각종 비리가 자행되어 거창지역의 3선 국회의원이었다던 이강두 전 의원이 구속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현 김천영 이사장 체제로 재편되어 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 거창군의 행정사무감사와 지역언론 등에서 전해지고 있는 각종 비리 의혹은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우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한국승강기대학교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조속한 수사 진행을 요청합니다. 또한 공명정대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대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한국승강기대학교 기숙사 건립공사 관련 편법을 동원한 특정업체 선정

및 특혜의혹

2. 한국승강기대학교 기숙사 건립공사 관련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금액 증액 의혹

3. 한국승강기대학교 기숙사 건립공사 비리 의혹 관련 거창군 공무원과 거창승강기대학 측의 째짜미 의혹

붙임.

1.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2. 한국승강기대학교 기숙사 건립공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2015. 07. 09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귀하

함께하는거창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함께하는거창**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함께하는거창**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하여, 생활세계에서의 주권확보와 참여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실현과 자치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함께하는거창**의 사무소는 거창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함께하는거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운동-사업을 전개한다.

1. 주민자치 운동 : 참여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활동
2. 자치공동체 회복운동 : 자치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3. 공론영역 형성운동 : 생활세계의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리적 공론을 형성하는 활동
4. 자치언론 개혁운동 : 자치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언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활동
5. 민주시민 교육운동 : 주민들의 주권의식과 참여의식 재고를 위한 회원 및 주민교육 활동
6. 기타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가입) **함께아는거장**의 목적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6조(삭제, 2006년 1월 17일)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함께아는거장**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함께아는 거장**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함께아는거장**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함께아는거장**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
2. **함께아는거장**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상벌) **함께아는거장**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회의 포상 대상이 된다.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비회원으로서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견책 또는 경고를 통해 반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되는 자.
2. 이 모임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본 회의에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자.
3. 위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그 직의 수행을 중지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절 회원총회

제10조(지위) 회원총회는 **함께하는거장**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소집) 정기 회원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 회원총회는 재적 회원 1/5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권한 및 의결) 회원총회는 **함께하는거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카페를 통해 공고하여야 하고, 의결할 내용을 반드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서면 및 온라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총회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 회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개선(공동대표, 감사)
3.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안건

제13조 (출석) 회원은 회원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출석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임원선출은 제외한다.

제14조 (임원개선의 절차) 임원의 선출방법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공동대표의 합의로 임명하고 회원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운영위원회는 **함께하는거장**의 일상적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련한 사항들을 의결·집행하는 기구이며, 모든 회의는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16조(구성) 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회원활동기구의 대표와 사무국장 및 후원이사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의 1항의 구성원과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겸직하고, 부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1개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 2항에 의거 구성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권한) 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각종 사업 및 활동의 입안과 집행
2. 회원활동 기구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
3. 운영위원 위촉,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4.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과 개정
5. 사무국의 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7.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20조(사무국) **함께아는 세상**의 활동을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간사, 정책, 기획,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후원이사회

제21조(공동대표 및 상임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함께아는 세상**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공동대표는 3인 이내 두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공동대표 호선에 의해서 1인의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한다.

제22조(고문) **함께아는 세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하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역의 신망 있는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함께아는 세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24조(감사) **함께하는거창**의 사업 및 재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후원이사회) **함께하는거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후원이사 호선에 의하여 후원이사회 회장을 선출한다.

제4절 회원활동기구

제26조(회원활동기구)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회원활동 모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자발적 회원활동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공식 회원활동기구로 등록되며,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의무

1. 활동상황에 대하여 회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활동결과에 대한 대외적 발표 및 대응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권리

1.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활동에 필요한 회원지도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필요한 대외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7조(회계연도) **함께하는거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1.운영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당해 연도 결산(안)은 회원총회 개최 전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예결산서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함께하는거창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9조(수입)

1. **함께아는계정**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기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2. 특별기금은 후원이사회에서 관리하며 그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할 때 후원 이사회의 결의를 따른다.
3. 특별기금의 이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회비) 회원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장학사업 특별회계(2009. 1. 20 신설)

제31조(장학사업의 목적) **함께아는계정** 장학사업 특별회계는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회계연도) 장학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수입) **함께아는계정** 장학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2. 본 장학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주민 또는 기관, 단체의 자발적 후원금
3. 후원금 모금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4조(지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후원자 모임에서 결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를 정한다. 단, 후원자 모임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35조(사무) 장학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후원자 모임에서 간사를 선임하거나, 사무국에 간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정관과 내규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제7장 보칙

제36조(정당 활동의 제한)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은 선출직공직에 입후보하는 경우, 정당의 주요당직을 맡을 경우 사임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라도 자동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제37조(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38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함께하는계정~~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함께하는계정~~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2009. 1. 20 개정)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1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7월 16일 임시총회에서 2차 개정(전면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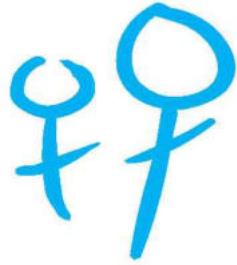
2005년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3차 개정, 통과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1월 17일 정기총회에서 4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9년 1월 20일 정기총회에서 5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2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6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7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www.gcngo.org